해외경제 · 투자정보

2011. 6.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카자흐스탄 원유·가스산업의 성장지속 예상

1. 원유·가스산업 현황

□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 매장량 풍부

○ 카자흐스탄은 확인매장량 기준 398억 배럴(세계 9위)의 원유 및 1.82조 입방미터(세계 18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탐사 지역이 많아 추가적인 탐사 및 생산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됨.

- 카자흐스탄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1%에 해당함.

<표 1> 중앙아시아 원유·천연가스 자원현황(2009년 말 기준)

	원유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억 배럴)	세계 비중 (%)	확인매장량 (조 m^3)	세계 비중 (%)
카자흐스탄	398	3.0	1.82	1.0
우즈베키스탄	6	0.0	1.68	0.9
투르크메니스탄	6	0.0	8.10	4.3
아제르바이잔	70	0.5	1.31	0.7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0.

□ 원유 생산량은 중앙아시아 1위, 유럽지역 3위 차지

○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량은 2009년 말 기준 168만 b/d인데,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2%에 해당하며 중앙아시아 내 최대 생산량 수준임. 또, 유럽지역 기준으로는 러시아(1,003만 b/d), 노르웨이(234만 b/d)에 이어 제3위 생산량 수준을 나타냄.

-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은 서유럽 선진국 및 신흥국들의 자원확보 경쟁,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은 여타 중앙아시아 원유생산국과 비교할 경우 자국 원유 소비량을 감안한 원유 공급여력이 높은 수준이며, 확인매장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가채연수(Reserve/Production ratio)가 65년에 달하는 등 원유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말 기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원유자원 가채연수는 아제르바이잔 19년, 우즈베키스탄 15년, 투르크메니스탄 8년 등으로 카자흐스탄의 가채연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 중앙아시아 원유 자원 수급 현황[주)]

수급현황 (단위: 천b/d)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채연수 (년)
카자흐스탄	생산량	1,356	1,426	1,484	1,554	1,682	64.9
	소비량	234	239	245	263	260	-
우즈베키스탄	생산량	126	125	114	114	107	15.2
	소비량	109	102	99	101	101	-
투르크메니스탄	생산량	192	186	198	205	206	8.0
	소비량	100	118	113	117	120	-
아제르바이잔	생산량	452	654	869	915	1,033	18.6
	소비량	108	98	92	74	60	-

주: 자국 소비량을 제외한 생산량은 대부분 수출하고 있음.

자료: <표 1>과 같음.

□ 천연가스 생산량은 중앙아시아 3위 수준

○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9년 기준 322억 입방미터로, 이는 세계 생산량의 1.1% 수준에 해당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644억 입방미터) 및 투르크메니스탄(364억 입방미터)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기록함.

- 유럽·CIS지역 국가 중 카자흐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는 7위를 나타냈으며 카자흐스탄보다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국가는 러시아,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영국 및 투르크메니스탄인 것으로 파악됨.

<표 3>　　카자흐스탄의 원유·가스 수급 현황 주)

		2005	2006	2007	2008	2009
원유	생산량(천 b/d)	1,356	1,426	1,484	1,554	1,682
	소비량(천 b/d)	234	239	245	263	260
가스	생산량(10억 m^3)	22.6	23.9	26.8	29.8	32.2
	소비량(10억 m^3)	18.8	20.3	19.5	20.1	19.6

주: 자국 소비량을 제외한 생산량은 대부분 수출하고 있음.
자료: <표 1>과 같음.

□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FDI 유입 지속

○ 풍부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에너지 산업 및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카자흐스탄의 북쪽에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세계 1위의 원유 소비국인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2. 카자흐스탄 원유·가스산업의 외국기업 참여 현황

□ 외국계 원유 관련 기업의 카자흐스탄 유전 지분참여 활발

○ 카자흐스탄의 원유는 대부분 텡기즈(Tengiz) 및 카라카차가나크(Karachaganak)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음. 텡기즈 유전 지분의 50%를 쉐브론(Chevron)이, 25%를 엑손모빌(ExxonMobil)이 보유하고 있으며 카라카차가나크 유전 지분의 32.5%를 BG그룹 및 에니(Eni)가, 20%를 쉐브론이 보유하고 있는 등 다국적 기업의 지분 참여가 활발함.

-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계 기업인 루크오일(Lukoil) 및 루크아르코(LukArco) 등도 카자흐스탄 유전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루크오일 및 루크아르코는 카라카차가나크 유전 지분의 15% 및 5%를 각각 보유

<표 4> 카자흐스탄의 주요 원유·가스 생산기업(2009년 기준)

기업명	원유 생산량 (천 b/d)	시장점유율주) (%)	천연가스 생산량 (10억 m^3)	시장점유율주) (%)
쉐브론(Chevron)	268	15.9	4.6	14.3
카즈무나이가즈 (KazMunaiGaz E&P)	231	13.7	-	-
망기스타우무나이가즈 (MangistauMunaiGaz)	155	6.8	0.4	1.2
엑손모빌(ExxonMobil)	150	8.9	-	-
페트로카자흐스탄 (PetroKazakhstan)	133	8.0	-	-
아크토베무나이가즈 (AkhtobeMunaiGaz)	122	7.2	-	-
루크오일(Lukoil)	107	6.4	1.49	4.6
에니(Eni)	70	4.2	2.7	8.4

주: 판매량 기준임.

자료: BMI, *Kazakhstan Oil and Gas Report Q2 2011.*

○ 텡기즈 및 카라카차가나크 유전 이외에 카스피해 북부에 위치한 카샤간(Kashagan) 유전에 대해서도 에니, 엑손모빌, 쉘 등 외국계 석유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카샤간(Kashagan) 유전은 2012년 말에 본격적으로 원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상 생산량은 7.5만 b/d 수준임.

□ 중국의 카자흐스탄 원유산업 진출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카자흐스탄 원유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함. 현재 카자흐스탄의 주요 원유기업들 중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 지분의 67%, 아크토베무나이가즈(AkhtobeMunaiGaz) 지분의 86% 및 망기스타우무나이가즈(MangustaiMunaiGaz)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북부 부자키(North Buzachi), 코니스(Konys) 및 벡타스(Bektas) 유전의 지분 각 50%씩을 인수하였음.

3.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현황

□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광구개발 진행

○ 2008년 5월,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컨소시엄은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해상광구인 잠빌(Zhambyl)에 대해 카자흐스탄 국영에너지사인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로부터 지분 27%를 인수하는 데 성공하였음.

- 동 컨소시엄은 SK에너지, 삼성물산 및 LG상사로 구성되었으며 잠빌 해상광구는 추정 매장량이 10억 배럴로, 이는 우리나라의 1년 소비량(약 8억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임.

○ 잠빌 해상광구 지분확보를 시작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원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잠빌 광구 외에도 2개 탐사광구에서 활발한 탐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탐사광구 외에도 생산광구의 지분 확보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투자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4. 카자흐스탄 원유·가스산업의 생산증가 전망

□ 중국, 러시아 등의 진출확대 예상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유전·가스전 개발 및 송유관·가스관 신설 및 증설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 러시아 등 외국기업의 진출확대가 예상됨.

-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대상국 확대를 목적으로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카자흐스탄의 송유관 및 가스관은 대부분 러시아를 통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인 원유·가스산업은 러시아와의 대외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함.

□ 외국인투자 증대로 인한 생산량 증가 기대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수출선 다변화로 인한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원유·가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중국과 인도 등은 여전히 중동지역에 편중된 자국의 자원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카자흐스탄의 원유·가스산업은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 및 경쟁적인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로 산업생산량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230만 b/d 및 660억 입방미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조사역 최 희 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